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shalom! 프라하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게 됩니다. 추석 한가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추석을 맞아 인사드리며 가정과 교회와 생업 터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체코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보다 이른 가을의 정취를 느낍니다. 날씨도 급격히 변화 언제가 여름이었던지도 모를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이곳에 온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날씨가 요즘 날씨 같았는데 정말이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1년이 가려나 하고 처음 이곳을 찾았는데 어느새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10월 2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약 5개월 정도 머물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되었던 비자 업무 진행에 변화가 생겨서 5개월 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희들의 비자 업무를 돕고 있는 체드('Chad')의 말로는 내년 2월 초에 본격적인 비자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들이 받은 비자만료일이 올해 1월 30일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나 접수할 수 있게 된다는 안내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부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상의 한 끝에 일단 한국에서 5개월 간의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전 늘사랑교회 안식관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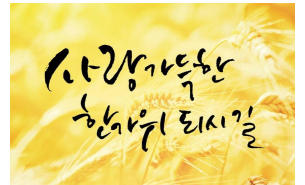
지난 시간 이곳 체코에 머물면서 체코를 비롯한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과 어려움들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흔적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곳마다 지역 사회의 인식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이 여전히 반유대주의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체코에서 만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으로서 접근하는 저에게조차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유럽 사회 내에서의 유대인들의 입지와 그들의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유대인 사역을 위한 네트워킹을 마련하고자 지역과 나라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된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 곳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에 돌아가면 유대 민족을 보다 더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의 아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가족들에게나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좋은 만남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으리라 믿으며 훗날의 열매를 위한 거름이 되길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비자 문제를 위해 또한 체코에서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제 곧 한국에서 뵈고 직접 인사드리길 원합니다. 서로 더 깊은 교제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남은 추석 연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1.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와 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유대인 사역팀(JCMT)와 베두원 사역팀을 축복하시고 팀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팀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요압 아저씨와 야곱 그리고 이브라힘 가정의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특히 베두원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종교비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초에 비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미국 측 행정 담당자(Chad)와 비자 관련 직원(이스라엘 정부)들의 마음을 주창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가족들의 건강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비염(담희,도하)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비드의 건강(편두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추석 인사올림



가족여행 중



체코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다시 추워진 날씨



떠나가는 뒷모습



**Jewish
Cluster
Ministry
Team**